

『인권연구』 7(1): 245-263.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7(1): 245-263.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4.7.1.245>

[현장논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도주의적 해법만이 전쟁을 멈출 수 있다

김 영 미\*

### 목 차

들어가며

1. 전사자, 슬픈 귀향, 그리고 인해전술
2. 아버지들의 전쟁
3. 엄마들의 전쟁
4. 폭격, 그것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기 위한 심리전
5. 전쟁 포로와 제네바 협약
6. 한 도시의 멸망- 마리우폴

마치며

### 들어가며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취재하기 원했지만 여권법 때문에 입국 금지가 된 우크라이나 상황을 알기가 쉽지 않았다. 폴란드에서 외국 국적의 취재진을 고용해 취재하는 걸로 만족해야 했다. 나는 외교부에 ‘취재의 의무’와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설득을 시작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위험지역이라는 명분을 깨기도 쉽지

\* 국제분쟁 전문PD

않았다. 하지만 지리한 협의 끝에 그리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성공시켰다. 2년이 넘어가며 관심도 시들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는 것은 훗날 기록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한국 언론인 시각의 취재가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있다. 국민의 알권리이며 세계 시민과 그들의 이웃의 전쟁이라는 당면과제의 압박이 컸다.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보를 위해서였다. 이 전쟁을 둘러싼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것이 재구성되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 국민들만 고립될 수 없다. 또한 21세기에 보기 힘든 인권 문제의 현장이기도 하다. 전쟁이 발발한 지 2년이 넘도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문제는 심각했다. 다른 여타 문제보다 인권 문제를 눈감을 수 없는 것은 세계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권 문제만큼은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익보다 윤리의 문제이다. 그 상황을 생생하게 담아와 우리 사회에 공감도를 높이는 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임무이기도 했다.

## 1. 전사자, 슬픈 귀향, 그리고 인해전술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가 여태껏 보지 못한 재래식 전쟁이었다. 25년간 취재하며 미군의 최첨단 무기의 전쟁만 보다가 들판에 참호를 파고 그곳에서 포탄을 날리는 전투를 보니 황당했다. 당연히 양쪽 사상자들이 속출한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그랬으리라. 현재는 성인 남성의 강제 징집령이 내려진 상황이라 집집마다 전쟁에 나간 아들과 딸, 그리고 남편이 다 있다. 사회학 박사인 안톤 호루세스키는 “다수의 우크라이나인들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가족이나 친구가 현재 우크라이나 군에 있습니다. 5월에 실시한 우리 연구소 설문 조사에 따르면 거의 80%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주변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집집마다 전사자가 속출한다. 게다가 전투가 치열해서 시신을 고향으로 옮겨 매장하는

일만해도 엄청난 기적이다. 대부분 우크라이나 중부 전선에 위치한 드네프르 시 병원으로 가서 부모들이 시신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도 운이 좋은 경우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신조차 고향으로 운구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다. 시신이 너무 조각이 나거나 전선의 혼란스러움으로 미처 전사자 시신을 수습 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사자들의 귀향에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함께한다. 오밤중, 영하 30도가 넘는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나와 꿰어앉아서 전사자를 맞이한다. 수많은 차량 행렬이 깃발을 달고 경적을 울리며 운구하는 차량을 따른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 없는듯했다. 길거리에 나와 꿰어앉는 것만이라도 하려는 마음이 몽클했다. 전사자들은 넘쳐났다. 나는 현지 정부 관리에게 하루에 5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난다고 들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실제 전사자 명단과 숫자를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 러시아 병사들은 비공식적으로 하루 1200명 가까이 전사한다고 들었다.

크고 작은 도시의 공동묘지에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꽂은 묘가 어마어마하다. 모두 이번 전쟁의 전사자들의 묘다. 오늘도 내일도 전사자 행렬은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미리 묘지를 파놓는다. 어차피 내일 되면 또 다른 전사자 시신이 들어올테니. 전쟁이 하루하루 길어질수록 그만큼의 전사자들이 늘어나기만 한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사자들이 유독 많은 것은 자원 입대한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통상 군대가 훈련을 받고 전선에 배치되는 매뉴얼이 지켜질 수 없는 형편이다. 급하게 시민에서 군인으로 자원 입대한 병사는 전선에 오자마자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전쟁 전 슈퍼마켓 주인이었다는 한 우크라이나 병사는 나에게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는지도 모른다. 사방에서 날아오고 포격이 울리면 무조건 엎드리고, 드론이 날아오면 달려달라고 빌거나 머리 위에서 터져 누군가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선의 일상”이라고 압축해서 말했다.

또 다른 병사는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총격전이 벌어지고 드론이 날아온다. 어쩌다 조용해서 보면 러시아 병사들의 시신이 퐁퐁 얼어

서 땅에 붙어있다. 떼지도 못하기에 러시아군들도 그 시신들을 수습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러시아군은 인해전술을 쓴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은 “죽을힘을 다해 하루에 수십 명을 죽여도 다음날 인원 다 보충되어 공격해온다.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다. 마치 우리의 탄약이 바닥날 때까지 머리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인해전술이란 전투원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압도적인 인원을 한 곳에 쏟아부어 상대를 압도하는 전술을 말한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중공군이 구사했던 것이 바로 인해전술이다. 사람의 목숨으로 탄약을 막아가며 전진하는 전술이라 몰려드는 대로 사살해도 끊임없이 병사들이 몰려온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인해전술로 인해 가지고 있는 탄약을 계속 소모하다가 탄약이 떨어지면 후퇴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전투에서는 당연히 엄청난 전사자들이 양측 모두에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화된 세상에서 70여 년 전에 보던 인해전술을 전투에서 보게 될 거라고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다. 사람의 생명이 하찮게 되는 가장 비윤리적인 전술이 바로 인해전술이다.

## 2. 아버지들의 전쟁

가족 중 일부가 전쟁에 나가면 그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체르니히우 노바바산느라는 마을에서 만난 니콜라스 오버춘크는 아들 둘과 사위까지 모두 전선에 나가 있다. 나이 든 두 내외가 딸과 손자를 데리고 하염없이 그들을 기다린다. 당장 내일 이 집 아들이나 사위가 전사자가 되어 온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니 늙은 부부는 하루하루 마음을 줄인다. 니콜라스는 “이 작은 마을에 이미 전사자가 수십 명이니 우리 아들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적이거나 다름없다.”고 심정을 말했다. 아들들이 젊지도 않다. 40대 초반이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평균 나이는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다. 이렇게 나이 든 병사들이 전선에 있는 것은 전쟁에 불리할 수도 있

다. 체력적 한계가 전쟁터를 누비기엔 약점이 된다. 그럼에도 고령의 병사들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나이 든 병력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죽느니 차라리 나이 든 사람들이 전쟁터로 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 때문이다. 전장은 혹독했다. 앞서 말했듯이 자원 입대하는 이들 병사들은 대부분 민간인에 가까운 병력이다. 총만 쥐어준다고 전문적인 병력이 되진 않는다. 전투 경험과 부대별로 시스템화된 전술을 하루아침에 익힐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 군의 사상자는 늘어갈 수밖에 없다. 외과 군의관인 블라디미르 그레고로브스키 씨는 “나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부상자를 맞아야 했고 전사자들의 시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밀려들었다. 하룻밤에 290여 명의 부상자가 몰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동부 하르키우와 남부 도네츠크를 지나 아우디우카를 넘어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서서히 조여왔다. 우크라이나 국토의 20%가 이미 러시아 수중에 들어간 상황이다.

“왜 전장에 나가세요?”라고 물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라고 대답했다. 아이들이 우크라이나라는 주권국가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 돌아온다. 키이우주 오브히브의 헬메이니카라는 마을에 사는 올렉시는 전장에 나갔다가 다리 하나에 부상을 입었다. 야간 전투 중 포탄이 떨어진 큰 구덩이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목발을 하고 고향집에서 치료 중이다. 그는 나이가 이미 47세나 된다. 전쟁이 나기 전 그는 치과 의사였으며 아들과 딸 남매를 키우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2022년 전쟁이 발발하자 아내에게 남매를 맡기고 그는 자원 입대해 도네츠크의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투입되었다. 부상병이 되어 돌아온 그의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내는 “병원이라고 연락이 왔을 때 나는 남편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영상 통화로 얼굴을 보여주었을 때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고 말했다.

올렉시는 무용에 재능이 많은 딸, 리자가 있다. 리자는 아빠가 전

쟁터로 가서 아침에 눈뜰 때 아빠가 없어서 내일 슬펐다고 했다. 비록 다리가 골절이 되어 돌아왔지만 아빠가 돌아왔을 때 울면서 아빠를 껴안았다고 했다. 올렉시는 딸이 무용을 하는 영상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딸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라가 전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전쟁터로 달려갔다고 설명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몸으로 겪는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올렉시와 비슷할 것이다.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전쟁을 맞고 있는 것이다.

### 3. 엄마들의 전쟁

시신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맞는 엄마들은 하늘이 무너진다. 아르토는 취미로 권투를 즐기던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다. 전쟁 전 헬스 트레이너로 열심히 살고 곧 결혼할 여자 친구도 있었다. 전쟁 전 다른 젊은이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컴퓨터 게임도 즐기고 친구도 많은 꿈 많은 여느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자원 입대했다. 전쟁의 모진 운명은 아르토를 비껴가지 않았다. 지난 1월 그는 시신이 되어 부모 곁으로 왔다. 키이우주 오브히브 광장에서 벌어진 그의 장례식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그의 엄마는 “살아돌아온다고 내게 약속했는데 이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라고 울부짖었다. 그 울부짖음이 너무 처절해서 촬영하던 나도 가슴이 미어졌다. 너무나 반듯했던 아들, 생때같은 아들이 포탄에 얼굴을 맞아 손상된 시신으로 관속에 누워있다니. 엄마로서는 미치고 돌아버릴 일이 아닐 수 없다. 퐁퐁 얼어버린 땅을 파고 아들을 묻을 때 엄마는 기어코 혼절했다. 장례식에 자원 입대했던 그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다. 묘지에 관을 넣고 흙으로 덮기 전, 우크라이나 애국가가가 울렸다. 그의 아버지는 가슴에 한쪽 손을 얹고 넋이 나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장례식 치른 오후에 다시 전장으로 떠났다. 남은 가족들은 또 가슴을 졸이며 그가 전장에서 돌아오길 기다려야 한다.

다시 지옥같은 시간이다.

올렉산드르 레뷰티크 씨(33)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건실한 청년이었다. 헝가리에 있는 모 대기업에 다니며 부모님에게는 들도 없는 귀한 외아들이다. 그는 전쟁이 나자마자 회사에 사표를 쓰고 입국하여 자원 입대했다. 그는 왜 자원 입대했냐는 나의 질문에 “부모님이 러시아 점령지역에 계시고 자신은 1991년 우크라이나 해방 때 태어나서 애국심이 남다르다.”고 말했다. 작년 그는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의 전투 현장에서 왼팔과 왼다리를 잃었다.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뺏고 빼앗기는 방어선 ‘수로비킨 라인’의 지뢰밭에 그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지뢰를 밟는 동시에 제 다리가 먼저 날아갔어요. 죽을힘을 다해 기어서 퇴각하다가 또 지뢰가 터졌습니다. 그 결과 왼팔이 날아갔습니다. 내가 기어나오는 동안 총 4개의 지뢰가 터졌어요”라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 돌아온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다. 연대 6000명 중 80%의 인원이 죽거나 부상당했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의 정신적 충격이 많이 커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병원에 옮겨져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구했다. 그의 고향은 체르니히우 리진시였다. 그곳엔 부모님과 집이 있다. 재활 훈련을 하며 그는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다. 마치 버터 바른 빵처럼 몸이 옆으로 쓰러지는 장애인이 된 몸으로 부모님을 차마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반년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을 만나러 가던 날, 그는 매우 긴장했다. 차로 2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고향집엔 아버지가 먼저 마중 나왔다. 이윽고 드디어 어머니를 만났다. 사실 나는 얼마나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을까 무척 걱정했다. 한쪽 팔다리가 없는 아들을 보고 쓰러질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였다. 그의 어머니는 너무나 활짝 웃으며 아들의 생존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 “자식이 살아있다는 것은 엄마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런 몸이라도 살았으니 나는 너무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집집마다 전사자들이 없는 집이

드문 상황이다 보니 이해가 갔다. 그의 어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아들을 배불리 먹였다. “자식이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 저는 이것만 봐도 원이 없습니다.”라며 기쁨을 표현했다.

#### 4. 폭격, 그것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기 위한 심리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며 가장 힘든 일은 매일 몇 번씩 울리는 공습경보였다. 탄도 미사일이 수시로 날아왔고 이란제 드론인 샤흐드가 매일 민간인의 주거 공간을 타격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드론이 날아와 그 집 거실에 터진다. 드론은 고정밀 폭탄을 안고 날아오기 때문에 인명 피해도 심각했다. 사람들은 창문을 열 엄두를 못내고 커튼을 치고 살아야 했다. 통창이 크고 좋은 아파트는 이제 드론과 폭격의 표적이 되었다. 우리에게 재산 증식인 아파트가 우크라이나에서는 폭격하기 좋은 타겟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매일 24시간 폭격의 위험을 견디는 것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불러왔다. 하루에 100여 발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날아온다.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모두 폭격에 대한 공포를 토로했다. 언제 가족들과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르는 삶, 내일을 알 수 없는 나날이 어언 2년이 넘어가니 시민들의 전쟁 스트레스는 아주 심해 보였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공습경보가 울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방공호로 옮기느라 진땀을 뺀다. 수업하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방공호로 숨어야 했다.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다. 심지어는 방공호 안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선생님들의 피로도도 높아 보였다. 아이들과 수업하다가도 수백 명이 동시에 방공호로 뛰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어린 저학년 아이들이 울기 시작한다. 고학년 아이들도 공포에 떨며 집에 있는 부모님들을 걱정한다. 보건교사인 빅토리아는 “가끔 어린 아이들이 공습에 대한 공포로 울거나 혼절하기도 한다. 전쟁 전보다 아이들의 정서가 현저히 불안하

다.” 며 아이들을 걱정했다.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언제나 위급을 다투는 것, 이것이 전쟁에서의 민간인들이다. 이들이 전쟁으로 비롯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것, 이것 또한 엄청난 전쟁의 피해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재 전장은 전장대로 전사자와 부상자들이 넘쳐나고 민간인들은 그들대로 전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우크라이나 최고 명문대학교이자 수재들이 모인다는 다라스 세우첸코 키이우 국립대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전쟁이 나고 1년이 지나서야 재개된 학과 수업. 그러나 그들의 수업은 순탄치 않다. 역시나 수시로 울리는 공습경보로 학생들은 지하 방공호로 앞다투며 내려가야 했다. 수업 또한 방공호안에서 이뤄진다. 내가 그곳에 취재 갔을 때 마침 공습경보가 울렸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서둘러 방공호로 내려갔다. 방공호안에서 여러 학과 학생들이 어두운 불빛 아래 책을 보고 강의를 듣는다. 유리 노마넨코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그날도 지하 방공호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방공호 수업이 익숙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교수님께 질문을 한다. 이 대학교 법대에서 국제법을 전공하는 한 학생은 “답답하죠. 별로예요 미래에는 이런 일을 제가 막을 수 있길 바라요. 근데 미래가 안 보여요”라고 말하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에게 민간인을 무력 충돌에서 보호하는 제네바 협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죠(Nothing)”라고 대답했다. 언젠가 전쟁이 끝나면 이런 모습을 학창 시절 추억으로 학생들은 기억할까. 제네바 협약도 학생들의 학습권도 우크라이나 전쟁 앞에서 휴지조각처럼 가벼워 보였다.

## 5. 전쟁 포로와 제네바 협약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며 나는 전쟁 포로에 대해 폭넓게 경험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이자 그 도시가 끼고 있는 바다는 아조우해이다. 우크라

이나의 주요 항구도시이기도 하다.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당시 약 42만 명의 시민이 살던 도시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의 마리우폴 포위전 직후에는 약 10만 명으로 감소했다. 러시아의 전면 공습으로 난민들이 도시를 떠났기 때문이다.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산업 도시이며 무엇보다도 제철소가 유명하다. 1897년 창업하여 10만여 명의 직원이 일하던 마리우폴의 일리치 제철소는 유럽에서도 유명하다. 제철소와 그곳에서 일하는 인력으로 마리우폴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도시였다. 그리고 1930년, 마리우폴에 세워졌던 ‘아조우스탈’은 마리우폴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가장 처참한 비극의 장소였다. 2022년, 개전 초기에 러시아는 마리우폴에 대한 엄청난 무력 공격을 벌여 도시 전체를 초토화했다. 특히 아조우스탈은 집중 폭격을 받았다. 그 이유는 ‘제36해군 보병여단’과 ‘아조우 연대’라는 우크라이나 최정예 부대 때문이다. 러시아의 엄청난 폭격에도 불구하고 아조우 연대는 항복하지 않고 아조우스탈 내부에서 결사항전을 하며 버텼기 때문이다. 제철소 안에서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아조우 연대는 매일 사상자가 늘어갔다. 탄약과 물자는 고갈되어갔고 부상병이 넘쳐났다. 아조우 연대는 필사적으로 방어전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마침내 2022년 5월 20일, 아조우 연대도 아조우스탈도 완전히 러시아에 함락되었다.

제철소 안에서 끝까지 최후의 항전을 하던 아조우 연대 병력은 즉각 러시아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들은 러시아 지역으로 옮겨져 갇은 고문과 폭력을 당했다. 발레리아 수보티나 소령은 아조우 연대의 정훈 장교였다. 그는 러시아 수감소에서 당했던 구타와 학대를 담담하게 나에게 설명했다. “매일 밤 나는 러시아군에게 불려가 나치라고 인정하라는 그들의 심문을 받았다. 그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사정 없이 구타했다. 내가 유일한 여성 장교여서 다른 병사들보다 더 혹독한 폭력을 가했다. 그러나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발레리아 소령은 같은 아조우 연대 소속 안드레이 수보티나 소령과 포위된 제철소 안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3일 후 남편

은 러시아 저격수의 총을 맞아 사망했다. 발레리아 소령은 “이승에서 겨우 3일간 부부였고 남편의 시신을 찾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가 사망하기 전날. 남편은 회의가 끝나고 발레리아 소령에게 “반드시 살아남아 줘”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러시아로 포로가 되어 끌려온 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남편의 유언 같았다. 그래서 소령을 향해 가해진 고문과 구타 등 갖은 폭력 속에서도 그 유언을 지키고 싶었다고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자 이를 악물고 폭력을 견뎠다. 발레리아 소령은 마침내 9개월만에 포로 송환으로 고국 우크라이나로 돌아올 수 있었다.

국제법상에 군인이라도 전쟁 포로가 되면 민간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게 되어있다.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전쟁 포로란 민간인과 다를 바 없다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나는 발레리아 소령에게 항복할 당시 어떤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소령은 “칼라시니코프 소총 한 자루입니다. 원래 총을 잃어버려서 사망한 전우의 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은 분명히 무기를 러시아 군에게 넘겼고 가위나 바늘조차 러시아군이 모두 수색해서 가져갔다고 했다. 심지어는 포로들의 옷을 모두 벗겨서 검사했다고 증언했다. 발레리아 소령은 자신의 모든 무기는 러시아군에게 주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설명했다. 그렇다면 소령은 분명 민간인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맞다. 아무리 적국의 병력이라 하더라도 포로에게 폭력을 쓸 수 없다. 의료 시설과 음식도 제공해야 한다.

나와 인터뷰한 또 한 명의 아조우 연대 병사의 이름은 블라디미르 자이보로노크였다. 그는 포로가 될 당시 이미 부상병이었다. 러시아 군에게 포로가 된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한쪽 다리를 잘라내야 했다. 그의 옆 병상에는 지병 때문에 복용해야 하는 약품을 제공받지 못한 40대 우크라이나 병사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충분한 의료 제공 또한 전쟁 포로에게 주어 져야 하지만 돌아온 우크라이나 포로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

다는 증언을 했다. 그는 “러시아군은 나에게 묶은 죽과 딱딱한 빵을 하루에 한 번 주었다. 나는 음식이 부족해 매번 굶주렸다. 화장실을 일주일에 한 번 갈 정도로 먹지를 못했다.”고 증언했다.

문제는 아직도 송환되지 못한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러시아에서 비슷한 조건에서 학대받고 있을 것이라는 염려이다. 대부분 송환된 포로들은 비쩍 마르고 뼈가 뒤틀려있거나 정신적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포로들의 모습만 봐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포로생활을 했는지 짐작이 갔다. 발레리아 소령이나 비록 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블라디미르 같은 경우는 행운이다. 국제사회는 이들 포로들의 실태에 대해 조사조차 못하고 있다. 정확하게 몇 명이 러시아 영토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지, 상황은 어떤지 그 어떤 소식도 서로 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로들의 가족들은 그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가 되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시내 전역을 돌며 아조프 연대 포로 가족들이 시위를 한다. 전화 한 번이라도 가족들과 하게 해달라고, 살아있는지 메시지라도 전해 달라고 시위를 한다. 국제법은 포로들의 생사와 건강 상태를 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포로들의 가족들에게 러시아가 안부를 전해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국제법상 위법이다. 하지만 포로 가족들의 외로운 목소리만 허공에 떠돌 뿐, 우크라이나 정부도 국제사회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법과 규정은 있지만 힘도 관심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이다.

막심은 아조우 연대에 복무하다 포로가 되어 러시아로 끌려갔다. 그는 딱 한 번 러시아 SNS에 등장하여 잘 있다는 간단한 안부를 이야기한 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사조차 모른다. 전쟁 전, 막심은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에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했다. 그의 어머니는 “막심은 딸아이 하나만 키우다 우리 부부가 8년 동안 고심해 갖게 된 하나밖에 없는 금쪽같은 외아들이다.”라고 말했다. 막심은 전쟁이 나자마자 자원 입대했다. 그는 마리우폴로 가서 아조우 연대 소속 병사가 되었다. 아조우 연대가 러시아에 항복한 후부터 전쟁 포

로가 되었다. 그의 누나 요하니아와 엄마 발레리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통령실 앞 건물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 외아들이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석방을 위해서다.

그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은 무척 힘들었다. 우리가 정한 인터뷰 장소로 오는 것만도 그들은 겁을 냈다. 낯선 사람과 눈도 마주치는 것을 무척 겁냈다. 나는 “나도 아들이 있다. 당신 아들처럼 외아들이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이해하니 한국에 있는 다른 엄마들에게 부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여러 차례 설득했다. 그렇게 성사된 인터뷰이지만 진행도 쉽지 않았다. 인터뷰 시작하며 마이크를 채워주자마자 막심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가슴속에 넣고 꺼내지 못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억울함이 막 터져나왔나 보다. 나는 인터뷰를 멈추고 한참을 진정 시켜야 했다. 그렇게 어렵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나는 내가 내 아들을 왜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건 너무 끔찍한 경험이고 나는 엄마로서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매일 11시간을 서서 시위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질문을 하니 “하나도 힘들지 않다. 내 아들은 더 고통에 있을 건데 이까짓 것이 뭐가 힘드냐. 이거라도 안 하면 누가 우리 막심을 구해올 수 있겠는가. 이거라도 해야 내가 산다.”며 평평 울었다.

인터뷰 중 놀라운 그의 말은 “나는 러시아 엄마들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 이 고통은 그 어느 엄마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라며 “나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러시아 정부가 이해해 주세요.”라고 러시아 정부에 부탁했다. 한 힘없는 우크라이나 엄마의 말이 러시아 정부에 닿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라도 말하면 그들이 들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나의 마음은 안타까움뿐이었지만 “그럴 거예요. 당신 아들도 내 아들도 안전하게 살아야죠.”라고 대답했다.

러시아에서도 어머니의 절규가 절절하다. 지난 2022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만 명 규모의 예비군을 강제 징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내렸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투입되어 전투에 참여 중이다. 이들 대부분이 평범한 시민들인지라 치열한 전투를 직업 군인들처럼 능숙하게 치르지 못한다. 그래서 비공식 하루 1200여명의 러시아군 장병이 전사한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동원된 병력 대부분이 전쟁과 무관하게 살던 평범한 시민들이 많다. 어느 날 갑자기 전쟁터에 투입되어 전선이 어딘지 뭐가 뭔지 모르고 전쟁을 겪다가 부상당하기 일쑤다. 이들에게도 가족이 있다, 아내, 형제자매 그리고 어머니. 이들 군사 동원령에 징집된 러시아 예비군의 아내와 어머니들이 ‘집으로가는길’이라는 인권 단체를 만들었다. 머리에 하얀색 두건을 쓰고 “남편과 아들을 돌려달라”며 겨울 내 모스크바 한 복판에서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시위를 한다. 이 단체 이름이 말하듯이 빨리 전쟁을 끝내서 남편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란다. 나와 어렵게, 그리고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간신히 통화가 된 ‘집으로가는길’에 소속되어 있는 한 러시아 어머니(이름을 밝힐 수 없는)는 “우리는 당장 오늘이라도 전쟁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들은 평범한 학교 선생이다.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아이다. 난 지금 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어머니도 우크라이나의 막심 어머니처럼 우느라 나와 인터뷰가 쉽지 않았다. 나는 “당신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싶다.”고 말하며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러시아 어머니는 “푸틴이 당신처럼 우리의 말을 충분히 들어준다면 전쟁은 금방 끝날 것이다.”라는 농담을 하며 간신히 진정되었다.

나는 러시아 어머니에게 우크라이나의 막심 어머니 사연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러시아 어머니들이 자기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자 러시아 어머니는 “나도 마찬가지로이다. 우리 아이들이 어서 전쟁에서 돌아와 우리가 해준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아들도 나의 아들도요. 우리 러시아 엄마들도 노력할 테니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고 우크라이나 엄마들에게 전해주세요.”라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양국의 어머니들

은 한마음이었다. 이들의 말을 국제사회가 들어줄 수 있다면 이 전쟁은 진작 끝났을 것이라 확신한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은 똑같다. 올해 6월초에도 러시아 국방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위를 벌이는 아내와 어머니들은 러시아의 신속한 철군을 요구했다. 러시아 신임 국방장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에게 ‘징집된 군인들이 전선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울면서 시위를 했다. 이들 중에 자신의 남편과 아들의 생사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어머니들과 가족들의 고통은 오로지 전쟁이 끝나서야 멈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에서 들리는 어머니들의 절규에 세계는 침묵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수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을 보았다. 그 뼈아픈 반성을 거쳐 전쟁에서의 인권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법의 기초가 되는, 그중 널리 알려진 것이 ‘제네바 협약’이 있다. 1864년 처음 만들어진 제네바 협약은 ‘전투의 범위 밖에 있는 자와 전투행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도의상의 요청에 의거하여 부상병·조난자·포로·일반 주민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이다. 1949년에는 네 개의 협약, 즉 ‘전장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으로 개정 및 확장되었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포로들은 인도주의적 보호 대상자들이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제네바 협약 비준 국가이다. 하지만 제네바 협약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왜 무용지물인지 한 사람의 언론인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다.

## 6. 한 도시의 멸망- 마리우폴

우크라이나를 취재하며 마리우폴은 너무나 가슴 아픈 도시였다.

오래된 한 유럽의 도시가 어떻게 잿더미가 되는지 보여주는 비극의 장소였다. 개전 초기 마리우폴 전투가 시내 곳곳에서 시가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수백 명의 민간인들은 위협해졌다. 시민들은 이 무서운 폭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장소를 찾아야 했다. 그중 ‘도네츠크 드라마극장’은 갑작스레 방공호가 되었다. 도네츠크 드라마극장은 유서 깊은 우크라이나 문화의 상징이었다. 각종 오페라, 발레 등 우크라이나가 자랑스러워하는 곳 중 하나다. 이 극장이 순식간에 민간인들의 방공호가 되었다. 마리우폴 시청 측에서 ‘도네츠크 드라마극장’에 비무장 민간인들이 대피하는 장소이며 이곳을 공식적으로 보호해달라고 알렸다. 제발 극장은 공격하지 말아 달라고 러시아군에게 탄원했다. 또한 극장 안으로 대피한 어린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극장 바깥 주차장에 ‘Дети’(어린이)라는 하얀 글씨를 적어 놓았다. 2022년 3월 16일, 국제사회의 간절함은 오간 데 없이 러시아 공군이 극장을 폭격해 버렸다. 130여 명의 민간인은 천신만고 끝에 구출되었지만 불행히도 매몰된 300여 명 이상의 민간인들은 그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에서 사상자가 나오는 것은 예상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민간인들의 죽음 앞에서 인류가 이들의 사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나는 더 무서웠다. 그들도 충분히 더 살 수 있는 미래가 있던 사람들이다. 전쟁의 책임을 민간인들이 져야 하는 것같은 비극에 세상의 침묵이 더 가슴 아팠다.

올레그의 가족은 마리우폴에서 키이우로 피난 나왔다. 이 가족은 올레그의 아버지와 고모 그리고 할머니, 사촌동생이다. 가족은 몇백 년간 이어지며 마리우폴에서 살았다고 했다. 올레그의 할머니 올렉산드리아는 “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마리우폴에서 살았으나도 마리우폴에서 태어났다. 고향을 버리고 온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 엄마의 묘도 아버지의 묘도 마지막으로 보고 오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다.”라고 했다. 이들 가족은 개전 초기에 전쟁이 이렇게 심각해질지 몰랐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민간인 주거지역에 러시아 포격이 가해지자 방공호를 찾아야했다. 다행히 어느 쇼핑몰 건물

의 지하 공간을 찾아 가족들은 무려 40일간 간헐이었다. 방공호로 들어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화장실이 있는 공간 물탱크에 있는 물을 아껴 마셨다. 빵 한 조각 구하지 못해 지하실 발코니로 날아와 앉아있는 비둘기를 잡아서 큰 냄비에 끓여 먹었다고 한다. 올레그는 “그때 우리는 산 목숨이 아니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올레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당시 마리우폴이 러시아군으로 둘러싸여 철저히 봉쇄된데다 너무나 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리우폴의 도시 인구 40만에서 10만으로 줄었을 때는 적어도 30만 명이 죽거나 피난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아조우 연대가 포로로 잡혀간 후 러시아는 인도적 통로로 피난민들이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것에 합의했다. 올레그 가족은 그때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방공호를 나와 집으로 향했다. 올레그는 40여 일만에 본 마리우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무너진 건물들, 골목마다 엎어져 있는 시신들, 거리마다 피범벅이고 길모퉁이마다 무덤이 자리 잡고 주인 잃은 개나 고양이... 살아있는 시민들은 아무 가게나 가서 유리창을 깨고 빵이나 의약품 등을 닥치는 대로 들고 나오고 있었고 올레그는 어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지구 종말이 온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하지만 이내 감정에 빠질 틈도 없이 집으로 와서 물건을 챙겼다. 올레그가 아끼던 책도 옷도 챙길 수가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언제 러시아군이 우리집에 포격을 할지 모른다.’ 이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은 서둘렀다.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 올레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공부방을 둘러보았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다시 내 방에서 자는 행운은 없을 거라고요.” 올레그가 말했다. 아버지는 아주 작은 소형차에 가족들을 태웠다. 민간인이라는 표식으로 손목에 흰색 천으로 만든 띠를 묶고 달랑 배낭 2개를 들고 그들 가족은 영원히 마리우폴을 떠나야 했다.

할머니는 지금도 꿈을 꾸면 꿈속에서 마리우폴 로컬 시장을 다니

고 극장 앞에 주차를 한다고 한다. 그들의 작은 가방 두 개에는 가족 사진들을 챙겨왔다. 할머니의 젊을 때 사진, 올레그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고모의 결혼 사진 등등 그 사진을 내게 보여주며 “우리는 고향을 잃었지만 가족의 역사까지 잃고 싶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내가 “마리우폴에 두고 온 것 중에 뭐가 가장 아까웠어요?”라는 질문을 했다. 할머니는 “부모님들의 묘지와 재봉틀”이라고 대답했다. 재봉틀은 시집을 때 어머니가 혼수로 장만해준 것 이라고 했다. 그걸로 가족들 옷을 모두 만들어 입었고 때로는 자신의 멋진 드레스를 만들어서 입고 행복해 했다고 한다. 그리고 할머니는 “나는 마리우폴이 어떤 도시였는지 기억해요. 나는 마리우폴을 정말 사랑했어요. 웅장하고 유럽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군이 단지 두 달 만에 우리 도시에 한 짓들은 용납할 수 없어요. 다시 그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무서워요.”라는 말을 했다.

우리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만들고 도시를 건설했다. 한 도시가 생겨나고 그 도시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식사를 하고 가족들이 삶을 이어간다. 그렇게 천년이 지나고 이천년이 지나며 비로소 지금 우리가 보는 도시가 생겨난 것이다. 마리우폴도 그 과정을 지나 수많은 시민들의 보금자리가 있었고 오페라를 하는 극장이 있었다. 그런 멋진 도시가 두 달만에 폭격과 총격, 무자비한 폭력으로 잿더미가 되었다. 나는 이것도 전쟁범죄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행복 추구권과 함께 거주이전의 자유 등등 모든 것이 건물과 함께 타버린 것이다. 민간인이 사는 주거지역이 어떻게 저런 폐허가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도시를 관심 밖으로 외면하면 안 될 것이다. 마치 마리우폴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경고이지 않을까.

## 마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 달간 취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한국 취재진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서였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모두 프로파간다(선전전)이 아주 대단했다. 작년 가을 바흐무트를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바흐무트를 점령했는지 도저히 한국에 앞서서는 알 수가 없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러시아군이 점령했다고 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이 아직 점령하고 있다고 하니 도저히 전세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밖에도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모든 것이 뉴스가 아닌 소문으로 혹은 비공식으로 나오는 말들이 사실인지 확인조차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지 않은 후폭풍이 걱정이 되었고 취재진의 마지노선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달간 만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슬픔과 눈물 그리고 절망의 국민들이었다. 슬라브족인 그들은 어지간하면 감정을 표현하지도 않고 말도 많이 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취재진으로서는 어려운 상대들이었다. 그들의 마음을 열고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를 듣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며 쏟아내는 눈물과 이야기는 엄청났다. 한국에 돌아와 편집을 하면서 그들의 얼굴과 눈동자를 보는 것조차 힘들었다. 전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민간인들, 가장 피해가 많은 사람들도 민간인들이었다. 이 엄청난 비극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있을까. 그들의 생명과 인권은 곧 우리의 생명과 인권일 수 있다. 분명 세계는 발전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전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민간인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